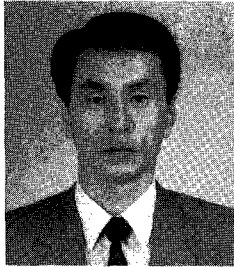


중추품질 향상, 올인 올아웃 체계 갖추어야 한다.



허 준 무
덕이농장 대표

I MF 관리체제의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21세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채란 양계산업은 기술 집약적 산업이며 기술 대응성이 가장 높은 축산업종이므로 앞으로 기술 개발이 많이 필요한 분야라 하겠다.

계란은 우리 국민의 축산물을 통해 얻는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의 13%나 차지하고 있으면

서도 생산과정이 너무나 낙후된 실정이다. 식량 생산자로서 경제적인 견지로 볼 때 아직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어 필요한 시설 및 사양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다고 본다.

또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선진국의 보호무역 철폐에 따른 시장개방 요구로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빠른 시일내에 대책과 적용이 필요한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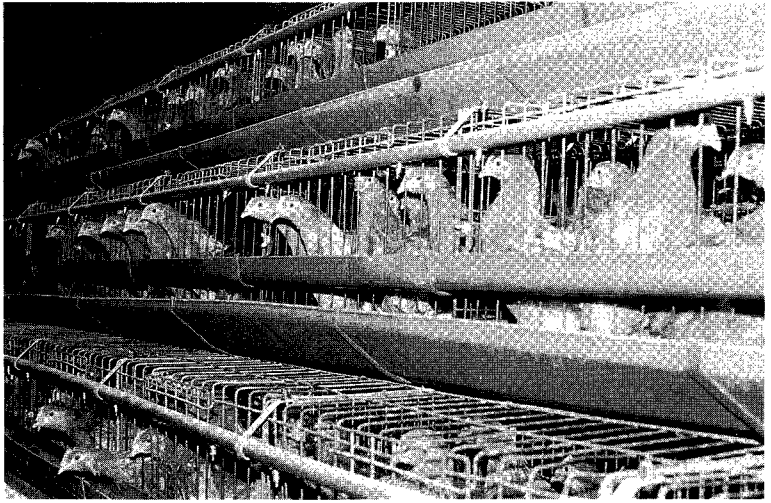
지금 양계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자가 단결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계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채란 농가도 2010년 후에는 약 400~500농가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암담한 실정에 놓여 있다.

이에 필자는 중, 대추의 육성이 채란 농가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우리나라 채란계가 세계 경쟁속에서 살아남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중추농장에서 꼭 해야 될 일을 적어 보고자 한다.

1. 입추 준비

중추가 나간 계사의 계분을 제거하고 살충제를 분무하여 진드기를 구제한 다음에 시설, 기계, 기구를 동력분무기의 고압수로 완전히 세척한 후 입추전 평당 5l의 소독약을 천장, 벽, 바닥 순서로 동력분무기를 이용하여 고압분사를 하고, 3일후에 1차 소독시 불충분 하였던 장소를 중점적으로 1차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 실시해야 한다. 특히 호흡기 질병이 자주 발생하는 계사에서는 3차 소독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1,2차 때와 다른 약제로 바꿔 사용한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쥐를 철저하게 구서한 다음 계사에 쥐가 살지 못하게 하여야 쥐로 인한 질병을 막고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막을 수 있다. 사람, 차량, 물자 동물의 출입관리 규정을 실천하면서 전용신발, 작업복, 모자는 별도로 사용하고 출입구에 소독 발판을 비치하여 농장내 환경 유지 프로그램을 실천한다.



2. 예방 접종

병아리 입추전 부화장에서 강하고 면역이 잘 된 병아리를 입추하고 입추당일 혈청검사를 의뢰해본 다음 병아리 예방접종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각 품종사양 기록부를 참조하고 인수하는 산란계 농장여건에 맞도록 전문수의사와 의논하여 결정한다.

접종계획에 맞게 점안접종과 음수 접종을 착실히 실천한 다음 35일령에 채혈하여 면역항체가를 확인한 다음 보강 접종을 해야 한다.

필자의 경우 사독백신을 가슴에 오일로 하는 방법을 권하는데 그 이유는 가슴에 근육 주사를 할 경우 다리 관절에 오는 부작용과 2차 오일접종시 같은 부위에 접종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방접종은 주인이 직접하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되며 접종후 채혈하여 접종결과를 확인하거나 접종부위의 접종 반응을 확인한다. 다리불구나 폐사는 접종 잘못으로 나타나는 경우

가 많으므로 폐사계는 반드시 부검하여 폐사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3. 사양관리 및 환경

양계 경영은 육성이 중요한데 수준 높은 관리자가 없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사양관리 기술의 습득이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사계절의 기온 습도의 관련성 그리고 환기량 확보의 문제로 집약할 수 있다. 춥다고 산란하지 않고 덥다고 산란하지 않으면 고도의 생산성을 중시하는 현대적 양계산업이라 할 수 없다. 즉 경제성을 중시하는 육성, 생산성을 중시하는 육성을 실행해야만 한다. 어쨌든 채란양계에서 육성 과정이 8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육성과정의 생산성을 판가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골격의 발육은 12주령(84일)에 이미 90%가 완성되며 골격 발육이 부진한 육성계는 체중도달과 균일성에 관계없이 지방계가 되기 쉽다. 즉 골격발육 및 체중은 시설,

사양관리, 사료 이 모든 조건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에 본 필자는 중·대추 육성 전문가로서 다음 몇가지 기본 사항을 꼭 잡고 넘어가려고 한다.

체중조절과 균일도 정착, 육성계 예방접종문제, 육성계 사료 개발문제, 육성계 점등 문제, 이런 제반 문제점들이 우리의 환경에 맞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생산비 절감이 되고 생산비가 낮아져야만 경영합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규모간 경쟁보다는 내실있는 경영관리를 통하여 마진을 높이는 쪽으로 경쟁을 해나가야 국제경쟁력이 확보된다. 높은 환율이 계속되고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보장은 없다. 머지않아 환율이 적정선으로 내려간다는 전제 아래 가공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산비를 낮추어서 대비를 해야 된다.

4. 중·대추 이동

이동 작업은 일생중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시기이다. 산란계사는 이동 2주전에 세척소독을 완료한 다음 계사내 시설이나 기계·기구를 수리·시험 작동한다. 특히 자동 급수기, 급이기, 환풍기 하나 하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사료는 가급적 이동전 사료와 같은 사료를 준비한다. 닭이동시 일반 닭차의 수평 감염을 막기 위해 될 수 있으면 일반 화물 차량에 중추농장에서 구입한 어리장(프라스틱으로 된 것이 좋음)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5. 계약사육의 좋은점(위탁사육)

- 무엇보다도 육성 농장의 중요한 요건인

“올인 올 아웃” 수용체제 실시이다.

- 목표체중과 체중균일도 85% 이상 유지
- 계약사육으로 일령을 속지 않는다. 일령을 속을 경우 점등이나 예방접종 날짜에 지장을 준다.

-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계약전에 의논하여 결정, 실시하기 때문에 면역항체가 고른 수치가 나온다.

- 높은 육성률을 보장한다.
- 농장내 환경 청정유지 프로그램을 실천한다.
- 프라스틱 어리장을 사용하여 닭차의 질병 전파를 차단한다.
- 점등프로그램을 산란농장에 맞게 실시한다.

- 평사가 아닌 케이지에 사육하여 개체관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균일도가 높다.

- 세균에 오염되지 않게 차단방역과 출입관리 규정을 실천함

-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서로가 최선을 다한다.

위생적인 이유와 질병차단의 목적으로 산란농장과 육성농장이 분리되어 건설된다.

그러므로 육성농장은 철저한 예방접종과 사양관리를 통하여 양계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중추 전문가로 자리를 잡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우리 산란계도 부화장과 중추장, 산란계 농장이 서로의 책임을 다 할 때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끝으로 1999년에도 대한양계협회를 구심축으로 협동 단결하여 양계업이 새로이 발전되기를 기원한다. 양계